

재외동포의

창

August 2017



조선왕실의 정통성과 권위 상징하는 '어보'

문정왕후 · 현종 어보 환수... 40여 점은 여전히 행방불명



6·25 때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다가 7월 2일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국내에 돌아온 조선 시대 문화재 문정왕후 어보.



문정왕후 어보와 함께 돌아온 현종 어보.

불법 반출돼 미국으로 흘러갔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용기에 실려 7월 2일 국내로 돌아오면서 어보(御寶)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선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는 국정에 사용한 국새와 달리 임금과 그 직계 가족들을 위한 의례용 개인 도장이다.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궁궐에 보관했다가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종묘에 함께 봉안했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어보는 조선 태조의 4대조부터 대한제국 순종을 비롯하여 추존왕 등 34명의 왕과 48명의 왕비와 계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제작됐다.

현존하는 어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어보는 1441년에 제작된 문종비 현덕왕후의 어보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어보는 1928년에 제작된 순종비 순명효황후의 어보이다. 어보에는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는 존호(尊號)와 돌아가신 후 공덕을 칭송하는 시호(諡號) 등을 새겼다. 추가로 존호나 시호를 올릴 때마다 어보를 새로 제작했다. 존호를 올리는 의식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종묘에 모셔 보관했다. 존호를 올릴 때 어보와 함께 보통 주인공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어책(御冊)을 함께 수여했다. 손잡이의 형태는 용이나 거북을 사용했으며, 높이는 9.6cm, 무게도 4kg에 달했다.

주요 성분은 금 대신 구리와 은을 54:23으로 혼합했다. 실무용인 국새에 비해 크기가 커서 조각 선이 굵고 덜 정교하다.

이번에 환수된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1547)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1501~1565)에게 '성렬대왕대비' (聖烈大王大妃)라는 존호를 올릴 때 만들어졌다. 가로·세로 각 10.1cm, 높이 7.2cm이며, 거북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 현종 어보는 효종 2년(1651) 임금의 맏아들인 현종(1641~1674)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돼 '왕세자지인' (王世子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재질은 옥이며, 문정왕후 어보보다 약간 더 크다.

조선과 대한제국이 만든 어보 375점 가운데 40여 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실되거나 외국으로 유출됐다. **장**



CONTENTS

2017. 08



- 02 한국의 얼 조선왕실의 정통성과 권위 상징하는 ‘어보’
문정왕후 · 현종 어보 환수... 40여 점은 여전히 행방불명
- 04 특집 “한글이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 ‘2017 한글학교 교사 연수’ 성료
48개국 132명 참가, 한국어 교수법 배우고 교육 노하우 공유
- 06 화제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한반도 주도권’ 잡고 ‘베를린 구상’ 띄우기
다자무대 성공적 데뷔... 4강외교 복원
- 08 기획 수산업에서 시작, 다양한 업종으로 자리 잡은 가나 한인사회
아프리카 최초로 한인회관 건물 보유... 한인들 안정된 생활
- 10 글로벌 코리아 미국 1위 한인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고석화 명예회장
외국인 첫 종합 자동차검사대행 면허 취득한 최진태 사장
캐나다 퇴행성 뇌 질환 연구 책임자 된 박지혜 박사
- 12 동포소식 재미 한인들美 심장부서 세 과사... 상·하원 의원 만남, 정치력 신장 외
- 15 동포 캘린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10월 서울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보조 외
- 16 유공동포 가나에 벼농사 보급해 식량난 극복한 김복난 아프코그룹 회장
서울올림픽 참가비용 전액 지원 장학사업, 의료사업 등 헌신
- 17 주목! 차세대 요리 심리치료사 꿈 키우는 우즈베크 동포 1.5세 이다미 씨
고려인 강제이주 수난 길 따라가는 ‘회상열차’ 탐사단 참가
- 18 지구촌 통신원 호주 6.25 전사자 어머니와 한국 여성 간의 50년 우정 감동스토리
‘부산으로 가는 길’ 출간 이어 시드니 전시회... 8월 다큐 공개
- 19 한민족 공감 고려인 애환 함께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극단 ‘고려극장’
9월로 창단 85주년... “한민족의 뿌리 잊지 않은 집념, 놀라워”
- 20 OKF 뉴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서 ‘뿌리찾기 캠프’ 참가 외
- 22 우리말 배워봅시다
- 23 동포문학 껍데기의 비애
송운석 _ 호주 _ 2016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 24 고향의 맛·멋 양은 푸짐, 값은 저렴, 맛은 매콤달콤 ‘안동찜닭’
닭고기와 채소, 당면의 환상적 어울림... 20대 고객이 특히 좋아해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2017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참가한 48개국 한글학교 교사 132명은 토크콘서트, 한국어 교수법, 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이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 ‘2017 한글학교 교사 연수’ 성료

48개국 132명 참가, 한국어 교수법 배우고 교육 노하우 공유



1. '2017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는 48개국 132명의 한글학교 교사가 참여했다.
2. 7월 18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재외동포재단은 7월 24일 폐회식에서 연수를 마친 교사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등지에서 '2017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48개국 한글학교 교사 1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토크콘서트 ▲한국어 교수법 ▲현장 활용 교수법 ▲한국어 수업설계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개막식이 열린 17일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교사들이 마음 속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전파하는 교사와는 달리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글은 물론, 모국의 뿌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며 “연수를 통해 한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교육 정보를 교환하며 네트워크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18~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개최하는 '세계한국어 교육자대회'에도 참가했다.

연수기간 교사들은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 반으로 나뉘어 교안 작성 및 학습지 교과제작 활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국내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는 그림, 연극, 마술, 놀이 게임을 활용한 수업도 진행됐다.

올해 새롭게 마련한 '나의 수업 클리닉'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수업이 이루어 질 때 필요한 교안작성법과 교수법에 대해 조언했다.

이밖에 이소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겸임교수의 '연극을 활용한 한글수업', 김차명 시흥 정왕초등학교 교사의 '비주얼 씩킹' 특강, 김태진 한국문화 국제교류운동본부 연구위원의 '한지공예' 특강 등 교직 소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을 알리는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 카드섹션도 진행했다.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시장, 동대문, 한옥마을, 인사동 등 서울 곳곳의 도시도 탐방했다.

연수는 박기태 반크 단장의 '해외 한국 오류시정을 위한 한글학교의 역할' 이란 특강을 끝으로 폐회했다.



7월 23일 한글학교 교사들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외한글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폐회식에서 “교육자로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글학교 교사는 천직”, 강정숙 · 장정윤 · 김주현

연수에 참가한 강정숙(62·미국 LA글렌데일한국학교), 장정윤(45·과테말라 한글학교), 김주현(26·인도네시아 족자한글학교) 씨는 인터뷰에서 “교사는 나의 천직”이라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1994년 미국으로 이주하던 첫해부터 한글학교 교사를 시작해 23년째 근무하는 강 씨는 한국 공립학교 교사 출신이다. 이민으로 교사를 그만두었지만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던 그는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계 아이들에게 모국을 알리는 일이라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강 씨가 강조하는 한글학교 교육의 핵심은 ‘정체성 확립’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2, 3세대들은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희박하다보니 한국계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는 “동포사회와 모국은 공생관계”라고 강조했다. 모국이 발전하면 동포들이 어깨를 펴고 살고, 동포들이 주류사회에서 활약하면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과테말라 한글학교에서 한국문화예술반을 맡은 장정윤 씨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한글학교는 비정규학교지만 동포사회와 모국을 이어주는 대표적 차세대 교육기관”이라며 “교사들은 주말 반나절 교육을 위해



‘2017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 사진 좌측부터 김주현, 강정숙, 장정윤 씨.

일주일간 수업준비를 하고, 사이버 교육 강좌를 듣고, 머리를 맞대고 교재를 개발한다. 애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부했다.

인도네시아 족자한글학교에서 4년째 교사로 재직하는 김주현 씨는 족자UKDW 대학 4학년생이다. 그는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한글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봉사하려고 시작했지만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걸 실감한 시간이었다”고 감사해했다.

이들은 학교마다 처한 교육환경이 다르지만 교사들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가’라며 자원봉사자라는 선입견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文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한반도 주도권’ 잡고 ‘베를린 구상’ 띄우기

다자무대 성공적 데뷔... 4강외교 복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 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던 3박 5일간의 방미일정까지 고려하면 11일만에 걸친 ‘외교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숨 돌릴 틈 없는 강행군으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양자와 다자를 아울러 반년 이상 ‘방치’ 돼온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순방의 더욱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것이다.

동북아 역내질서를 이끄는 한반도 주변 4강(強), 즉 미·중·일·러 모두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7월 6일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내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제안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먼저 ‘협업’ 하도록 외교적 논의구조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주요한 성과로 꼽힌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도 정작 북핵 해법을 놓고



2



3

1.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현지시간)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끝)이 각국 정상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6일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7월 5일 독일방문 첫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출구론’을 분명히 했다. 이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와 같은 5대 원칙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 적대 행위 중단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4대 제안으로 한층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공식방문 기간과 G20 정상회의 기간인 7월 5~8일 나흘간 모두 9개국과 10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중 한반도 주변 4강을 빼면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첫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과 실권을 지닌 총리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을 소화했고, 캐나다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회담이 이뤄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고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 3개 국제기구 수장과의 면담을 이어갔다.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평소 4강 외교 탈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는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동상이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4강 사이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이견을 조율해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관심 주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를 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를린 구상’ 하이라이트 장식… 중장기적 평화구상 제시”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베를린 구상’은 바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리 정부 주도로 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 6일 코르베체단 초청연설을 통해 제시한 구상의 핵심은 도발을 통한 국제적 고립이나, 대화를 통한 밝은 미래의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메시지였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향하는 도발의 길로 계속 갈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올 경우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희망하는

獨 동포들 ‘문재인’ 연호… 文대통령 “국민만 믿고 가겠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 동포간담회 오찬 인사말에서 “그동안 비정상이 너무 깊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일을 조금만 해도 엄청난 개혁처럼 됐고,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 보따리도 풀었다. 그중에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와 손쉬운 투표 참여를 위한 재외동포 선거제도 대폭 개선이 눈에 들어왔다. 이에 교포들은 독일의 경제수도이자 유럽 본부가 집결한 교통의 도시, 프랑크푸르트에 한국문화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독일에는 수도 베를린에만 한국문화원이 있다. **창**

수산업에서 시작, 다양한 업종으로 자리 잡은 가나 한인사회

아프리카 최초로 한인회관 건물 보유... 한인들 안정된 생활



1

1. 가나 수도 아크라 시내에 있는 최대의 종합시장 마콜라 시장. 이곳에는 점포상보다 주로 생필품, 야채, 생선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2. 아프리카 대륙 첫 한인회관이 2011년 12월 가나의 한인밀집지역 테마에 건립됐다. 한인회관은 건평 1천400여㎡의 단층건물에 각종 시설을 갖췄다.



2

우리나라가 서아프리카 가나와 정식 국교를 수립한 것은 1977년이지만 한인 진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참치잡이 원양어업의 전진기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이뤄졌다. 그때 가장 유명했던 수산업체가 '아프코'(AFKO)이다. 이 회사를 창업한 고(故) 김복남 회장은 가나 한인사회가 성장하는데 초석을 깔아준 개척자이다.

김 회장이 이끄는 아프코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무역업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확장, 대기업이 됐다. 그는 민간외교활동과 자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나에 한국과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했다. 수산업 분야는 지금도 10여 개 한국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안 트롤어업도 같이 했으나 중국 어선에 넘어갔고 참치잡이 어선만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진입으로 수산업이 줄어들자 한국 업체들은 건설, 창고, 운수업 분야로 눈을 돌렸다. 한인들의 업종이 다양해져 플랜트 수출, 요식업, 통신업에도

뛰어들었다. 현재 가나 거주 한인 숫자는 800~1천 명 수준. 한인 종사 업종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선교사가 40개 가정에 달한다. 한인교회가 3개 있고 대부분 선교사는 지방에 흩어져 선교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나 한인사회의 특징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기 한인사회가 김복남 회장의 아프코 수산을 중심으로 뭉쳤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성세대와 신진세대 간 질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 가나의 수도는 아크라이지만 한인이 모여 사는 것은 아크라에서 가까운 항구도시 테마(Tema)이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 같은 곳이다. 이곳에는 한인회관이 있다. 2011년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인회관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건평 1천400여㎡의 단층건물에 회의실·도서실·공연장·전시실 등을 갖췄고, 태권도장·축구장·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마련됐다. 비용은 당시 임대재

Ghana



3



4



5

가나 한인회장이 60만 달러를 쾌척하고 교민들이 17만 달러를 모금, 재외동포재단이 15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인회관 건립에 기여한 임도재 전 한인회장은 글로벌이라는 플랜트수출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아프리카중동한인회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한인회관이 건립됐을 때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회관 옆에는 한글학교와 한인교회도 있는데 김복남 회장 생전에 아프코수산이 지어준 것이다.

가나 한인들은 여가활동으로 골프를 즐긴다. 아크라와 테마에 4개의 골프장이 있다. 공항 옆에 위치한 9홀 골프장은 공군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리노베이션을 지원한 김복남 회장의 공로를 기려 복남김 골프코스라 골프장 이름이 바뀌었고 클럽하우스 앞에는 그의 흉상이 있다. 임도재 회장도 테마에 있는 골프장 회장을 맡고 있다. 가나 한인회 활동 가운데 한인회장배 고교축구대회를 빼놓을 수 없다. 아크라와 테마 지역 고교생을 초청해서 해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한인사회가 현지인과 어울리는 한마당 큰 행사이다. 축구 강국 가나에서 축구는 인기 스포츠 종목이어서 한인회장배 대회는 현지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 한인회는 우승컵 외에 쌀 몇 가마와 냉장고 세탁기 등 푸짐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인회와 가나 군경 합동으로 재난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한인회 활동으로 미뤄 가나 국민이 한국에 호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14년 영국 BBC 조사에 따르면 가나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고 한다. 반면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를 휩쓰는 ‘차이나러시’ 바람은 가나도 예외가 아니다. 가나 거주 중국인은 공식적으로 3만 명 수준이나 실제로는 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인을 무시하거나 불법 채굴 등으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인 러시현상을 빚는 가나에서 한인 숫자는 정체상태에 있고 일본인은 20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가나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젊은 사람들이 자주 줄어든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으로 유학 간 자녀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수산업 종사자도 나이 들어 은퇴자가 늘고 있지만 뒤를 이을 젊은 세대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참치잡이 분야도 조금씩 잠식해들어오는 상황이다.

가나는 인구가 약 2천700만 정도이고 면적은 한반도보다 조금 넓다. 대부분 지역이 평지로 경작이 가능하며 금과 원유,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가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수입원이다. 이들 3대 수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폭락한 데다 유럽식 복지시스템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내년 4월 기한으로 3년간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으나 무사히 졸업해 경제회복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12월 새로 들어선 정권이 지도력이 있고 국민 신뢰도 높아 정치가 안정되면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 경제의 호전 조짐은 한인사회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

3. 가나에서는 매년 한국대사배 태권도대회가 열려 전국의 태권도클럽 회원들이 참가한다. 사진은 2015년 12월 아크라 스타디움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대회.
4. 7월 3일 가나 건국기념일(Republic Day)을 맞아 진행된 인명구조훈련이 사고 없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가나 군·경, 소방청, 시민단체 등에서 600여 명, 가나한인회에서 30여 명이 참가해 시가행진과 인명구조 시범 행사 등을 벌였다. 나화련 한인회장이 훈련참가증서를 받고 있다.
5. 1990년 7월 고(故) 김복남 회장이 경영할 당시의 가나 테마에 있는 아프코 그룹 전경.

24년 이사장직 전격 사임... “마지막 명함은 ‘자선 사업가’”

미국 1위 한인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고석화** 명예회장



미국 내 19개의 한인 은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총자산 134억 5천950만 달러 규모인 ‘뱅크 오브 호프’다. 이 은행의 모태인 월셔은행에서 시작해 24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아온 고석화(72) 이사장이 7월 6일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당일 열린 이사회에서 은행과 지주사인 ‘호프뱅크’의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현지 은행업계와 동포사회는 그의 퇴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은행 주식 410만 주를 보유(지분율 3.03%)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최대 주주인데다 사임 자체가 워낙 갑작스러웠기 때문이다. 고 명예회장은 전 세계 73개국 147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제15대 회장을 지냈고, 모교인 연세대에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선 후퇴 이유에 대해 “오래전부터 후배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손에 꼭 쥐고 있던 타이틀을 내려놓은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 그림’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이사회에서 어른으로서 ‘뱅크 오브 호프’가 아시아계 은행 가운데 1위(현재는 3위)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선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고 명예회장은 ‘뱅크 오브 호프’의 확장을 위해 올해 시작한 한국계 ‘유니은행’과의 인수합병 절차와 서울지점 오픈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계 1위 은행 자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는 기대한다.

“예전처럼 은행에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자유롭겠죠. 이제는 더불어 사는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가 닦고 싶어하는 인물은 30조 원을 넘게 기부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다.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을 망친다’ 등 그의 철학이 마음에 든다며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 ‘한국판’ 원스톱 자동차검사소 문 열어

외국인 첫 종합 자동차검사대행 면허 취득한 **최진태** 사장

캄보디아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자동차검사소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이 검사소의 주인은 최진태(52) HK트윈스 트랜스포테이션 사장이다. 그가 수도 프놈펜 시 센숙구에 세운 ‘HK 자동차검사소’는 7월 27일 개소해 본격적인 정부 대행 서비스에 나섰다. HK는 영문 ‘해피 코리아’(Happy Korea)의 이니셜이다.

최 사장은 “3년 전부터 자동차검사소 사업을 준비하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종합 자동차검사대행’ 정식면허를 취득하고 검사소를 차렸다”며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 검사와 자동차 등록, 번호판과 운수면허 발급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는 물론 자동차 부품 판매와 식당, 커피숍 운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2012년 캄보디아에 진출한 최 사장은 렌터카와 중고

자동차의 수입·판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지지의 후진적인 자동차 검사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최 사장에 따르면 중국계 캄보디아인 업체가 장기간 독점권을 갖다 보니 피해가 속출했고, 캄보디아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훈센 총리는 교통부 장관을 경질했다. 이때 그는 새롭게 임명된 찬톨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첨단 검사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정식면허 발급을 요청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받은 훈장 '모니세라폰'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훈장은 정부와 왕실에 대한 기여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여하는 것이다. 현지에서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등 사회사업을 많이 한 데 대한 답례였던 셈이다. 최 사장은 하루 300~400대, 1년 365일 검사를 하면 연간 10만~14만대를 검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첫 매출액은 200만 달러로 예상한다. 그는 "앞으로 캄보디아 전국에 30여 개의 분점을 개설해 한국의 선진 검사시스템을 보급·정착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루게릭병 원인 규명 통해 치료기반 개발 중... 노벨의학상 욕심 난다”

캐나다 퇴행성 뇌 질환 연구 책임자 된 **박지혜** 박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5월 5일 30대 한인 여성 과학자에게 캐나다 분자 유전학 및 퇴행성 뇌 질환 연구 책임자 직책을 줬다. 주인공은 2015년 말부터 토론토 소아전문병원에서 '과학자'로, 토론토대 분자유전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는 박지혜(37) 박사. 그는 박사과정과 박사후과정에서 보여준 연구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아 트뤼도 총리로부터 '연구장' 타이틀을 받았다.

박지혜 박사는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2년 차 때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논문을 썼다. 그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와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등에 실렸고, '제 저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퇴행성 뇌 질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당시 나이에 비해 엷된 얼굴 때문에 언론에 '초파리 소녀'로 소개되기도 했다. 연구실에서 주로 초파리와 씨름하며 연구했기 때문이다.

박사후과정을 끝내고 2015년 캐나다 '루게릭병 재단'과 '브레인 캐나다'가 루게릭병에 관한 연구 계획서를 공모했는데, 거기에 응모해 선발됐고, 연구비를 받으면서

캐나다로 가게 된다. 당시 루게릭재단은 박 박사에 대한 기대를 담아 웹사이트에 '루게릭병의 라이징 스타'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캐나다에서 루게릭병을 연구하는 '초파리 과학자'로 변신한 것이다.

박 박사는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연구 방법과 첨단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다른 질병들(당뇨병, 심장병 등)의 원인도 규명하고, 치료제도 개발했다"며 "루게릭병을 포함한 다른 퇴행성 뇌 질환도 시일은 걸리겠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뇌 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노벨의학상 수상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6년 동안 루게릭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초파리와 씨름할 계획이다. **정**



재미 한인들 美 심장부서 세 과사... 상·하원 의원 면담, 정치력 신장

재미 동포들이 7월 25일 미국 정치 중심지 워싱턴DC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영향력을 드러내고 한인 정치인을 육성하는 행사를 열었다. 특히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한인의 정치적 요구를 전달하는 '집단 로비'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더는 '정치적 소수'가 아님을 과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인 풀뿌리대회(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를 통해서다.

재미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시민참여센터(KACE)'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주 전역에서 모인 참석자 600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오전에 조를 나눠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재미 한인의 애로 사항과 요구를 전달하고 협조를 약속받았다. 특히 오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갈라 만찬 행사에는 이들이 만난 의원 중 무려



재미 한인들이 7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연방 하원의원 17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인 풀뿌리대회 행사를 열고 있다.

17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해 한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한국 관련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의정 활동을 다짐했다.

한인 풀뿌리대회 워싱턴서 개최... 만찬 본행사에 하원의원 17명 참석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을 비롯해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플로리다), 테드 포(캘리포니아·이상 공화) 의원 등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 로이스 위원장은 행사에서 한인들과의 협조 속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과 각종 대북제재 법안과 결의안 등을 통과시키고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한미 양국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강조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포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자신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편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석 KACE 이사는 "작년만 해도 의원들을 만나러 가면 성사되는 비율이 5분의 1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다"면서 "이는 행사를 통한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내년에는 법안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일본군위안부결의안 등 미 의회를 통해 거둔 성과는 미주 한인들의 정치 참여와 비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주미 대사는 행사에서 "첫회부터 4년째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발전의 속도가 놀랍다"고 말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글로벌한인공동체의 중심인 재미동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원이 되고 한미동맹강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일민단, 유엔에 ‘재일한국인 차별 보고서’ 제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인권옹호위원회(위원장 이근줄)는 최근 ‘일본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대해서’라는 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권이사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손성길 위원회 사무국장은 7월 6일 “오는 1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본 정부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것을 앞두고 일본 내 외국인의 차별 상황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라며 “재일동포의 지방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헤이트스피치 등의 인종 차별 상황을 적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UPR에서는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에서 대표단이 일본의 인권 상황을 심사 후 권고 내용을 작성해 공표한다. 일본은



재일민단 산하 인권옹호위원회의 이근줄(사진·가운데) 위원장은 최근 유엔에 ‘재일한국인 차별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에 심사와 권고를 받았으나 재일한국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50만 명에 이르는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을 소개한 후 항목별로 일본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지방선거권·공무담임권의 제한’을 통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권

참여나 지방 공무원 채용·승진이 제한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5년 전 UPR의 권고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도 알렸다. 또한, 이것이 유엔의 자유권 규약 2조 및 26조,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와 5조, 유엔 소수자권리 등에 반하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려인 위해 침묵의 기도를...” 카자흐스탄 첫 정착지서 진혼제

고려인 강제이주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제가 8월 1일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의 바슈토베 마을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극동 시베리아 실크로드 오디세이-회상열차’ 탐사단 주도로 열렸다. 이곳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첫 정착지로 193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곳이다.

회상열차 탐사단원, 우슈토베가 속한 카라탈 군 관계자, 현지 고려인,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셈바예브 카이라트 아슈랄리에비치 카라탈 군수가 환영사에 나서 “카자흐스탄에는 43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특히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1937년 소련 연해주에서 강제로 끌려온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토굴을 파고 살았던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의 바슈토베 마을에서 8월 1일 오후 고려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제가 열렸다.

지금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우호 협력의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회상열차 탐사단원인 광주 고려인마을의 시인 김 블라디미르 씨와 시인 윤고방 씨가 회상열차를 타고 오며 지은 ‘헌시’와 ‘우슈토베의 하늘에 고함’을 낭송했다.

80년 전 강제이주를 직접 경험한 광응호(곽 미하일 니콜라예비치·95) 씨와 천역실(천 미하일 다니엘로비치·

92)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먹을 것도 나눠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고마워했다. 탐사단은 이날 새벽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역에 내려 대장정을 끝냈다.

남미로 간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 도시문제 해법 주목

남미 국가들이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해 중앙·지방정부 행정을 혁신하고 대중교통·치안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한-브라질 전자정부 포럼’에 참석한 상파울루 주 정부와 주내 도시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방식에 귀를 기울였다.

‘전자정부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은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지자체 합동 전자정부 사절단’이 주도했다. 제1 세션에서는 ▲상파울루시 대중교통 정책과 현황 ▲서울시 ITS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2017년 한-브라질 전자정부 포럼’에서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브라질 지방정부 인사들은 중앙-지방정부 간, 정부-기업 간 시스템 통합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주민 참여 유도 방안 등 한국의 전자정부 운용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및 TOPIS 운용 사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교통 문제 해결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제2 세션에선 ▲상파울루 도시행정 혁신 사례 ▲소로카바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거미줄 감시망: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지리정보(GIS) 기반의 도시 정보화 혁신 사례가 발표됐다. 정 국장은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전자정부 시스템을 급속도로 발전시켜 왔다”면서 “효율적인 한국형

“위안부 참상 잊어선 안 돼”… 美 뉴저지 주에 기림비 제막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저지 주에 7월 19일 또 하나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됐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성적 고통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리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로 버겐카운티 한인회가 클리프사이드파크 인근 트리니티 에피스코펠 성당(Trinity Episcopal Church) 앞 정원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것이다.

뉴저지 주내 위안부 기림비는 2010년 팰리세이즈 파크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후 유니온 시티 등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이고, 전체 미국 내에서는 여덟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석 판으로 제작된 기림비에는 ‘위안부(The Comfort Women)’라는 제목 아래에 두 손으로



미국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한인회가 7월 19일 클리프사이드파크 인근 트리니티 에피스코펠 성당 앞 정원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했다.

얼굴을 가리고 웅크리고 앉은 모습의 위안부 형상이 묘사됐다.

기림비에는 ‘일본군에 의해 납치돼 성적 노예(sexual slavery)를 강요당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은 2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기억하며’ 라면서 ‘그들의 고통받은 참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제막식에는 현지 한인회 관계자와 버겐 카운티 관계자,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측

참전용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숙 버겐카운티 한인회장은 “일본군에 의해 한국 여성들이 성적 노예로 고통받은 역사를 알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고 기림비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

통일 ·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한민족합창축제’ 개최

국립합창단(예술감독 구천)은 미국과 중국의 동포합창단을 초청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연천에서 ‘2017 한민족합창축제’를 열었다. 광복을 축하하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여는 이 축제에 올해는 미주여성 코랄(미국)과 연변예술대 메아리합창단 · 진달래합창예술단(중국)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립합창단과 협연으로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과 민요, 통일 염원 노래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창작곡 등을 선보였다.



“분단 현실 느꼈어요”

재미동포 청소년 경희대서 모국 연수

경희대 국제교육원(원장 조현웅)은 재미동포 자녀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뿌리교육재단(회장 전지웅) 주최로 7월 4일부터 진행된 ‘청소년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14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있는 뿌리교육재단은 2000년부터 해마다 미국 각 지역의 동포 자녀들을 선발해 경희대 국제교육원 주관으로 모국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올해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등지를 돌며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문화유산을 답사했다.



재일 민단, ‘민단 문화상’ 공모… 9월 13일까지

재일동포사회의 중심단체인 재일본대 한민족민단(이하 민단)은 9월 13일까지 ‘민단 문화상’을 공모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에세이 · 논문 · 우리말 표어 · 회화 · 시가 등 5개 부문에 걸쳐 공모하며 참가자는 각 1개 부문만 응모할 수 있다. 에세이는 ‘효도’를 주제로 2천 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고, 논문에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나 민족교육 등을 주제로 한 연구나 의견을 담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103-3454-461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indan.org/kr>)를 참조하면 된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맞아 ‘청년 동행단’ 발족

동북아평화연대는 5월 17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상임대표 도재영 · 사진)를 출범시킨 데 이어 7월 8일 서울 용산구 센트럴프라자(삼경교육센터)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억하는 청년 동행단’ 발족식을 열었다. 내국인과 고려인 2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 동행단은 현행 법령상 고려인 4세대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19세 이후 국내에 정착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인특별법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日, 지진 · 쓰나미 발생 시 한국어로도 대피 안내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국어 등 외국어도 자세한 대피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총무성이 중심이 돼 내각부, 기상청, 관광청,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해 발생 시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국어 매뉴얼을 연내에 작성하기로 했다. 대상 외국어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모두 5개 국어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10월 서울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보조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고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자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치러진다. 전 세계 73개국 147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회장 박기출 · 사진)는 7월 4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제19대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22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가나에 벼농사 보급해 식량난 극복한 김복남 아프코그룹 회장

서아프리카 가나공화국에 진출해 수산업을 기반으로 성공신화를 쓴 고(故) 김복남(金福男·1933~1995) '아프코(AFKO)' 그룹 회장은 한인사회와 현지인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다. 나보다는 남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대한신학교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69년 한국과 가나가 합작한 수산회사 (주)동화가나의 주재원으로 가나공화국에 발을 디뎠다. 1978년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고용 창출과 사회사업, 한국과 가나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다는 커다란 목표하에 '아프코'를 창업했다.

아프코는 아프리카와 코리야를 합친 말로 내년으로 창립 40년을 앞둔 현재 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200여 명의 임직원을 둔 가나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인의 가나 진출 역사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김 회장은 1978년 5월 가나 주재 한국대사관을 설치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다. 가나 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가나선수단 42명의 항공료와 체재비 등 비용 전액을 부담한 일은 유명한 일화이다. 가나 체육계 발전에 남다른 열의를 보인 고인은 현지 체육계의 '대부(代父)'로 불려왔다.

김복남 회장의 공적사항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가나인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은 1982년 수도 아크라 외곽의 400여만 평 규모 초원에 새마을농장과 농업훈련학교를 설립, 벼 재배를 중심으로 옥수수, 양계, 농기계 작동법 등 농업기술을 보급해 다수확 종자 보급과 농업발전 및 식량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수산업을 기반으로 아프코 그룹을 일궈 성공한 고(故) 김복남 회장은 무료로 농업기술을 가르쳐 벼농사 기술보급에 나서는 등 식량난 해결에 기여했다.



**서울올림픽 참가비용
전액 지원 장학사업,
의료사업 등 헌신**



증산에 기여하고 현지인 농업후계자들을 양성한 점이다.

현지인의 주식과 부식은 옥수수, 암, 카사바 등인데 재배 기간에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벼 재배는 3개월 반이면 수확이 가능한데도 가나인들은 벼 재배도 모르고 쌀을 먹을 줄 몰라 식량난에 허덕였다. 김 회장은 쌀을 생산하면 식량난을 극복할 것으로 보고 농장에 벼를 재배했다. 햇볕 좋고 물이 풍부한 여건은 벼 재배에 잘 맞아 시험 결과 1년에 3모작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1천250명의 가나 학생들이 농업훈련학교를 졸업, 전국 곳곳에서 벼 재배에 땀을 흘리고 있다. 가나인들의 입맛도 변해 쌀 선호가 가장 많아 쌀 재배 부족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농업기술 전수 이외에 장학사업, 의료사업 등 가나인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공로로 1987년 가나공화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그를 '브라더'로 부를 정도로 저명인사가 됐다. 한국기업과 상품의 가나 진출 및

시장개척에도 앞장섰던 고인은 1980년부터 매년 고향 속초의 초·중·고교생 40여 명과 가나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1992년 1월 가나 한인교회를 세우고 현지의 3개 개척교회를 지원했다.

1975년부터 1995년 타계할 때까지 21년간 가나 한인회장을 지낸 김 회장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과 모란장을 받았다. 

요리 심리치료사 꿈 키우는 우즈베크 동포 1.5세 이다미 씨

80년 전 고려인 강제이주 수난의 길을 따라가는 '극동시베리아 실�크로드 오디세이-회상열차' (7월 23~8월 5일) 탐사단에는 다양한 사연을 지닌 각계각층의 인사 84명이 탑승했다.

그 가운데서도 한화푸드컬처(FC) 외식사업부 이다미(27) 씨의 이력과 참여 동기는 유독 눈에 띈다. 한국에서 태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17년간 살다가 미국을 거쳐 다시 모국으로 돌아온 데다 이번 행사의 후원사인 한화그룹 사원 참가자 공모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기 때문이다.

인터뷰에 응한 다미 씨는 이른바 중앙아시아 국가 뉴커머 동포 1.5세로서 정체성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참가했다고 털어놓았다.

“신청 사연을 쓰다 보니 저희 집 일을 도와주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운전기사 아저씨가 떠올랐고,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와 겪었을 고생과 설움을 생각하니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사는 제 처지도 돌아보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모르고 있던 고려인 수난사도 더듬어보고 제 정체성 고민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수입 소고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다미 씨의 아버지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국교를 맺자 1994년 가족을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한국의 가전제품을 수입해 파는 무역업체를 타슈켄트에 차렸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러시아어로 대화했고 생각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회상열차'에 탑승한 우즈베키스탄 뉴커머 동포 1.5세 이다미 씨.

러시아식으로 했다. 집에 와서는 한국말을 쓰고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니 헛갈릴 때가 많았다. 영어로 공부하는 국제중학교로 진학하니 똑같은 생김새의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반갑기는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지사 주재원 자녀들이어서 계속 얼굴이 바뀌었다. 다미 씨는 우즈베크나 한국 친구들과는 자신의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에 정체성 혼란에 빠졌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요리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를 알아보던 중 미국 뉴욕의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모집 공고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앞뒤 돌아보지 않고 원서를 내 합격 통지를 받고 뉴욕으로 날아갔다. CIA는 기본 2년제로 운영되는데 2년의 경영 과정을 추가로 밟을 수 있었다. 대학으로 치면 4학년 때 미슐랭가이드 별 두 개짜리 식당 '일레븐 매디슨 파크'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그곳 오너셰프가 따로

운영하는 인근 식당의 정식 직원이 됐다. 그런데도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이번엔 한국을 택했다. 한국에서 마음의 안정은 찾았지만, 정체성 고민이 금세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한화FC 외식사업부가 음식 레시피(조리법) 전산화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자료 정리를 맡았다가 눈에 띄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요리로 심리 치료를 하는 직업을 개척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

“
고려인 강제이주
수난 길 따라가는
'회상열차' 탐사단 참가
”

호주 6·25 전사자 어머니와 한국 여성 간의 50년 우정 감동스토리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아들을 찾아 56년 전 약 1만5천km의 먼 길 여행에 나섰던 한 호주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한국인 여성 간 우정의 이야기가 양국에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지난해 초 호주에서 책으로 나온 데 이어 최근 시드니에서 전시회가 시작됐고, 8월 중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이야기는 호주 동부 브리즈번에 살던 델마 힐리(1905~1971) 여사가 1951년 한국전에 24세의 나이로 참전한 아들 빈센트의 전사 소식을 들은 후 10년간 겨우겨우 돈을 모아 아들 묘소를 찾아 부산을 방문하는 내용이다.

힐리 여사는 부산을 다녀온 뒤 여행 일기와 몇몇 자료를 남겼고, 이 자료들은 2014년 언론인인 손녀 루이스 에번스(54)에게 우연히 눈에 띄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에번스는 할머니의 사연에 감동해 '부산으로 가는 길' (Passage to Pusan)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힐리 여사의 당시 부산 방문길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고, 이를 본 한국전쟁 전사자의 부인인 김창근 여사와의 인연은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2014년 89세 나이로 별세한 김 여사는 '빈센트의 한국 엄마'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해마다 부산 유엔군 묘지를 찾아 빈센트의 묘소에 헌화했고 힐리 여사와 편지 교류도 하게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현재 손녀 간 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출간에 이어 6월 23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두 가족을 맺어준 특별한



1



2

1. 5월 1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호주 언론인 루이스 에번스 씨가 다큐멘터리 제작차 방문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아리랑TV와 함께 다큐멘터리 '부산으로 가는 길' 을 촬영하고 있다. 다큐는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빈센트 힐리 병장의 어머니인 델마 힐리 씨가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10년 만에 아들의 행적을 찾아 나선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2. 생전의 델마 힐리 여사가 아들의 사진 앞에서 서 있는 모습(왼쪽), 1961년 부산 UN묘지를 방문한 모습.

“
‘부산으로 가는 길’
출간 이어 시드니 전시회…
8월 다큐 공개
 ”

우정’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다시 태어났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에번스를 포함한 힐리 여사의 가족과 함께 시드니에 사는 김 여사의 손녀딸 그레이스 김 가족 등 양가 가족 10여 명을 포함해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에번스는 인사말에서 “전시를 본 많은 가족과 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동적”이라며 이번 전시가 한·호 양국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경화 주호주 한국대사는 “호주와 같은 나라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코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여행 일기, 사진, 편지 등 6개의 설치작품이 전시됐다. [▶](#)

김기성 연합뉴스 시드니 특파원

고려인 애환 함께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극단 ‘고려극장’

1920년대 말부터 신한춘구락부 연예부, 김니콜라이연주단 등 아마추어로 구성된 소인(素人)예술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1930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노동자청년극장이 설립됐다. 이를 토대로 1932년 9월 9일 ‘고려극장’이 출범했다.

출발은 공산주의 사상 선전과 소수민족 관리를 위한 소련 정책의 일환이었다. 사회주의 혁명 정신을 기리거나 집단농장의 작물 증산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무대가 꾸며졌고 노래 후렴구는 대부분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민족 정서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인간힘을 썼다. 춘향전, 심청전 등 우리나라 고대소설을 연극으로 꾸몄고 민요 가락을 접목해 노래를 지었다. 하지만 곧 시련이 닥쳤다. 스탈린 정권의 결정에 따라 연해주 고려인들이 강제로 열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것이다. 고려극장 단원들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로 대부분 옮겨갔고 일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떠났다. 고려극장도 둘로 나뉘었다가 1942년 우수토베로 이전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 1950년 통합됐다.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만년에 고려극장 수위로 일하며 자신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홍범도’를 지켜보고 1943년에 생을 마쳤다.

1960년대 타슈켄트 예술대와 알마티 연극예술대 졸업생이 대거 입단해 고려극장은 활기를 띠었고 그 전성기가 8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소련 전역에 흩어져 살던 고려인들에게 고려극장이 순회공연 오는 날은 명절이고 잔칫날이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카자흐스탄 등이 독립했다. CIS(독립국가연합) 각국에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카자흐어 등이 공용어로 채택되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처지가 힘들어졌다. 다시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지역이나 한국으로



2015년 5월 1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고려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장군 고선지’의 한 장면.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당나라 총사령관까지 오른 고선지를 통해 고려인들이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애환을 표현했다.

“9월로 창단 85주년...
“한민족의 뿌리 잊지 않은
집념, 놀라워”

재이주하는 고려인이 적지 않았다. 고려극장도 정부 지원이 끊겨 운영난에 빠졌다. 1991년 알마티에 한국교육원이 문을 열고 이듬해 한국대사관이 개설되면서 고려극장에 숨통이 트였다. 1992년 한국 국립극단과 자매결연해 단원들이 모국 초청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 등의 후원도 이어졌다. 현재 고려극장의 단원은 90여 명이며 연극단, 성악단, 무용단, 사물놀이팀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300편가량 연극을 무대에 올렸는데, 한국어 대사를 구사하고 러시아어로 동시통역 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9월이면 고려극장이 창단한 지 85주년, 연해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지 80주년이 된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모국과 단절된 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기고 한국어 교육이 금지된 가운데서도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은 집념이 놀랍다.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서 ‘뿌리찾기 캠프’ 참가

48개국 419명 참가자들 “평창올림픽 홍보” 다짐

전 세계 48개국에서 모국을 찾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7월 1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모여 한국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고 재외동포재단이 밝혔다.

재단이 마련한 ‘2017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Teens Camp)에 참가한 각국 중·고교생 419명은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서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거주국에 돌아가면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태극기와 각국 국기를 들고 ‘모국 사랑’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어 동계올림픽 홍보관과 각종 경기장을 둘러봤다.

재단은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충재)과 함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매년 초청해 한민족 문화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Teens Camp’를 열고 있다.

주철기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캠프를 통해 다양한 모국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 각 분야에서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자랑스러운 한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개회식에 앞서 11일 오리엔테이션과 ‘상상하러 당신만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의



48개국에서 모국을 찾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7월 1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다짐했다.

주제강연을 들었다.

13일부터는 군산, 아산, 울산, 목포 등 9개 지역으로 흩어져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농촌체험, 지역 문화 이해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역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에 다시 모인 청소년들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 된 열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파주 임진각 DMZ에서 ‘Peace Korea, DMZ 자전거평화 대행진’과 ‘한반도 지도 만들기’ 카드섹션을 펼쳤다.

러시아·CIS 고려인 교사에 맞춤형 초청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러시아·CIS 고려인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5개국에서 온 30명의 고려인 교사는 7월 26일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5주간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교수법 학습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어 실력에 따른 분반 수업, 문법·어휘·이해·표현에 관한 맞춤형 교수법 강의, 모의수업 등에 참여해 교사 역량을 배양했다.

이 밖에 역사·문화 특강, 한국 문화 체험, 부채춤과 사물놀이 강습 등에도 참여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고려인 교사들은 한민족 문화와 말을 후대에 전하는 귀중한 일꾼”이라며 “연수 기간 배운 것을 활용해 현지화하는 고려인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회 복 에 힘 써 주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고려인 사회 세대교체에 따른 정체성 단절을 극복하고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고려인 교사 초청연수를 펼치고 있다.



러시아와 CIS에서 온 고려인 한국어 교사 30명은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며 정체성을 함양했다.

남아공서

아프리카한글학교협의회 창립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한글학교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한글학교의 연합 모임인 아프리카한글학교연합회 창립총회와 합동교사 연수회가 열렸다.



7월13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한글학교에서 아프리카한글학교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에는 남아공, 모로코,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알제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등 8개국 13개 한글학교 대표를 비롯해 45여명의 한글학교 관계자들이 참가해했다.

초대 임원진으로는 황재길 회장(요하네스버그한글학교장), 김태균 동부지역 부회장(탄자니아 다레살렘한글학교장), 전명숙 서부지역 부회장(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한글학교장), 김민희 남부지역 부회장(남아공 프레토리아한글학교장), 심재석 북부지역 부회장(모로코 라바트한글학교장), 서명호 감사(남아공 포케스트롬한글학교장), 김원진 사무국장(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교감) 등 임원을 선출했다.

아프리카한글학교협의회 한글학교 교사 합동연수회와 함께 열린 이번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또 아프리카 각 지역의 한글학교에 필요한 운영정보,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을 공유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파견한 김경호 교수의 ‘소통과 공감 및 학습 코칭 리더십’ 강연과 차승민 교사의 ‘교사 아이 부모 마음 읽기’의 강연도 열렸다.

윤혜선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 차장은 주철기 이사장의

축사 대독에서 “아프리카 22개국에 있는 32개 한글학교가 한민족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재단은 한글학교를 더욱 좋은 배움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연합회 회장은 협의회 발족과 합동교사연수회 축하 격려금으로 행사 측에 3천달러를 후원했다.

고려인·에네켄 후손들, ‘한식·뷰티케어’ 직업연수

재외동포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 차세대 한인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고려인과 에네켄(애니깽) 후손 56명을 초청해 3개월간 직업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44명은 인천재능대에서 9월 22일까지 직업 연수를 받고 있다.

현지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한식요리와 뷰티케어로 전공을 나눠 배우며, 뷰티케어는 헤어와 메이크업 과정을 별도로 분리해 교육받고 있다.

멕시코·쿠바 에네켄 후손 12명은 9월 27일까지 경기도 오산대에서 헤어·네일아트 기술을 습득한다.

재단은 쿠바에서 일본 강점기 상해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독립유공자 호근덕 선생의 증손녀인 다니엘라 호 플레이타도 연수생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연수 기간 한국어 교육, 산업체 현장 학습, 한국 문화 체험에 참여하고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멕시코에서 온 제니퍼 유는 “선조는 1905년 살리나 크루주 항으로 입항한 첫 한인 이주민이었다”며 “한인후손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큰 자부심이다. 직업연수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면 멕시코내 미혼모 단체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기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로 한식 및 K-뷰티 전문가로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도 높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시발 / 효시

50대 이상 된 분들에게는 '시발 택시' 라는 것이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택시 이름은 '맨 처음의 출발이나 발차' 를 뜻하는 한자어인 '시발(始發)' 에서 나온 것으로, 흔히 이 말은 '시발점(始發點)' 이라든가 '시발역(始發驛)'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시발' 의 '시' 자는 '처음 시(始) 자를 씁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단어로 '어떤 사물의 맨 처음'을 뜻하는 말인 '효시(嚆矢)'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신소설의 효시는 이인직의 <혈의 누>다 라고 한다면, <혈의 누>라는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신소설로 꼽힌다는 뜻이 됩니다.

'우는 화살'이라는 뜻의 '효시' 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은 <장자(莊子)>의 재유편(在宥篇)에 나오는 말인데요, 옛날 중국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개전의 신호로, 우는 화살을 적진에 쏘아 보냈다고 합니다. 효시는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로, 온갖 사물의 맨 처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남 / 호남

'영남' 이라는 말은 '재 령(嶺) 자와 '남' 남(南)' 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영남 지방'은 어느 재, 즉 어느 고개의 남쪽이라는 말일까요? 어떤 분은 대관령(大關嶺)의 남쪽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관령의 남쪽이 아니라 '조령' 다시 말해서 문경 새재의 남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남' 이라는 말은 '호수 호(湖) 자와 '남' 남(南)' 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호수 호(湖) 자를 쓴 것은 호수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호강(湖江)' 이라고 불리던 강의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호강' 은 지금의 '금강' 을 말하는데, 금강 이남 지역을 가리켜서 '호남 지방'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방' 이라는 말은 원래는 공주나 부여 같은 충청도의 일부와 전라도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북도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7월호 정답

가	습	기	골	기	관	차
랑		단	무	지		
이	심	전	심	구	불	구
	청		가	위	들	
수	전	노	세	옛	장	수
화		비	지			박
		기	린	옥	수	
육		내	부	선	검	
심	술		산	화	랑	도

▶ 오른쪽 방향 열쇠

1.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
3. 손을 대지 않고 버려두어 거칠어진 땅
5. 땅의 이름, 지방·지역 등의 이름
7. 기이한 행동
8. 평온하고 화목함
9. 아들 또는 딸의 아들
10. 수소나 헬륨 등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채워서 대기 중에 띄우고 추진용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항공기
11. 환영이나 축하, 격려, 찬성 등의 뜻으로 손뼉을 여러 번 치는 일
12. 여행 중의 견문이나 체험·감상 등을 적은 글
14. 기압·기온·습도·바람·구름·눈·비 등을 종합한 기상 상태
15. 사인(私人) 사이에 지는 빗
16.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18. 필기 용구의 한 가지. 흑연 가루와 점토를 섞어 개어, 가늘고 길게 만들어서 굳힌 심을 가는 나뭇대에 박은 것
19. 끝이 뾰족하며 꼬부라진 물건
20. 종이나 비닐 등으로 만든 주머니
21.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졸업해 학위 논문의 심사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위, 또는 그 학위를 가진 사람

22. 친구 사이의 정
23. 중국요리의 한 가지. 쇠고기나 돼지고기 튀김에 새콤달콤하게 끓인 녹말 국물을 끼얹어 만든다

▶ 아래쪽 방향 열쇠

2. 지상하고 인정스러운 모양
4.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
6. 총이나 활 등을 잘 쓰는 사람
10. 비석에 새긴 글
11. '흥부와 놀부'에서 제비가 흥부에게 물어다 준 씨앗
13. 행랑의 된 집채. 문간채라고도 하죠.
14.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고기. 생고기
15. 모든 잘잘못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옴
16. 개과의 짐승. 개와 비슷하나 좀 야위었고 늑대나 송냥이보다 좀 큼. 털빛은 대개 회갈색 바탕에 검은 털이 섞였으나 변화가 많음. 무리를 이루어 다니며 성질이 사나워 사람을 해침
17. 심청이의 아버지
19. 소의 갈비를 토막 내 물에 넣고 끓인 음식. 결혼식 등 한국 잔치의 단골 음식으로도 등장한다

껍데기의 비애

송운석 _ 호주 _ 2016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시드니 여름
유칼립투스나무 껍질 떨어낸다
칼바람 이는 그늘
무더위 속 연말이 씨늘하다

목피 찢기는 크기와 모양은
햇살이 배인 동료의 사랑
새들과 숨죽이며 한 야근
윗선의 돌개바람이 남긴 상처인양
매 순간들의 조각처럼 쪼개지고 분류되어
목매인 시간만큼 붙들고 늘어진다
어느 날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말라서 떨어져 나간다
남아 있는 몇 가닥 호흡
실낱 포옹이 위태하다
더러는 나무 가지에서 고공농성하며
고락을 나는 시간 걸쳐두고
그림자 허공에 훅날린다

끝내는 무장한 외풍이 분다
동반된 살수의 타격이 가른 표피
액체가 타고 내린다
흙수저에 고이는 눈물 한 큰술
강압에 저항하며 펄럭이는 함성
뒤집힌 곤충처럼 발버둥 친다
뒤돌아 뒤틀리며 매달려 몸부림치다
허깨비 같은 껍데기는
바닥에 널브러진다

속수무책으로 나아온 길가에는
땀벌아래 호박잎이 힘겹다
살아있는 동안
넝쿨의 노동은 납작 옆드려
뺨을 자릴 찾는다 **창**



양은 푸짐, 값은 저렴, 맛은 매콤달콤 '안동찜닭' 닭고기와 채소, 당면의 환상적 어울림... 20대 고객이 특히 좋아해



경북 안동시 서부동 안동 구(舊)시장 '찜닭골목'. 30여 곳의 찜닭 전문식당들이 몰려있는 이곳은 주말이면 외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경북 안동 하면 찜닭이 먼저 생각날 만큼 '안동찜닭'은 이 고장의 대표 음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닭고기와 각종 야채, 고추, 당면이 함께 연출해내는 맛의 어울림은 환상적이라 할 만하다. 물론 영양도 만점이다. 안동찜닭의 본향(本鄉)인 안동시 서부동 안동 구(舊)시장에 가면 골목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찜닭 식당들이 손님을 맞는다. 골목 양쪽으로 나란히 늘어선 찜닭 전문식당은 무려 30여 곳.

안동찜닭은 언제 탄생했을까? 안동이 전통의 고장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찜닭도 오랜 역사를 지닌 음식이려니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찜닭골목'은 1970년대만 해도 생닭과 튀김통닭을 주로 파는 '통닭골목'이었다. 튀김통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버무려 넣고 맵고 칼칼한 맛을 내는 마늘통닭이 등장해 1980년대 초반까지 입맛을 유혹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앞세운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마늘통닭은 차츰 경쟁력을 잃어갔다.



안동찜닭을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당면부터 공략하는 게 좋다. 피지기 전에 양념과 국물을 적당히 묻혀가며 입에 넣어야 쫄깃쫄깃한 제맛을 즐길 수 있다. 이어 고기와 야채를 먹고 마지막으로 졸아든 양념 국물에 콩깃밥을 넣어 비벼 먹으면 배도 부르고 식감도 그만이다.



찜닭 요리는 생닭과 함께 고추, 간장, 물엿, 야채, 당면 등을 차례로 솥에 넣고 센 불로 바짝 끓여 완성된다.

서양식 치킨에 손님을 빼앗긴 재래시장의 통닭식당들은 갈비찜 양념에 채소와 당면을 넣어 새로운 맛을 내는 상품 개발에 나섰다. 소갈비찜 양념을 찜닭에도 사용하되 청양고추를 넣어 느끼한 맛을 없애고 당면도 추가해 양을 푸짐하게 늘린 게 옹케 먹혀들었다. 찜닭은 갈비찜 양념에 당면과 각종 채소를 넣어 조리한 이른바 퓨전 음식이다. 종래의 닭요리는 주재료인 닭고기의 양과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찜닭은 닭, 당면, 채소가 넉넉히 어우러져 한결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먹고 남은 국물로는 밥을 비벼 먹을 수 있어 술안주뿐만 아니라 밥반찬, 간식, 찌개 등 여러 용도로도 그만이다.

이렇게 태어난 안동찜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안동찜닭은 닭고기에 당면과 채소, 간장과 물엿 등을 넣은 뒤 센 불로 국물을 졸이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닭은 삼계탕용보다 더 큰 것이 좋은데 부화 후 40일가량 된 닭(무게 약 1.3kg)이 최적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생닭을 직접 잘라 요리에 썼으나 요즘은 닭공장에서 배달받되 냉동하지 않은 채 신선한 상태 그대로 사용한다. 음식의 담백한 맛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은 사전에 없앤다. 솥에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일 때 중요한 것은 불의 강도다. 닭고기와 양념 등을 넣은 뒤 화력 300도 이상의 센 불로 바짝 끓여줘야 한다.

그래야 남은 기름기가 마저 제거돼 닭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찜닭만의 맛깔스러움이 극대화되고 때문이다. 이렇게 바삭해진 국물에 당면과 야채, 매운 고추를 넣고 5분가량 더 끓여주면 찜닭 요리가 완성된다.

찜닭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리이지만 특히 20대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따라서 이들 젊은층의 취향에 맞춰 찜닭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당면이나 야채 없이 닭고기에 소스만 넣는 쪄름닭이 그 한 사례다. 치즈와 가래떡을 찜닭에 넣은 치즈가래떡찜닭도 등장해 젊은이들을 유혹한다. 4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중짜(한 마리 반) 찜닭 가격은 3만8천 원, 5명이 넉넉히 즐길 수 있는 대짜(두 마리) 값은 4만8천 원이다. [▶](#)

안동시 여행정보

당일 여행 정보 안동 시내 → 봉정사 → 안동 한지 공장 및 전시관 → 하회 세계탈박물관 → 하회마을 → 병산서원

대중교통 동서울 버스터미널-안동(1일 32회 운행, 3시간 소요)
서울 청량리역-안동역(3시간 30분 소요)

식당정보 안동대가찜닭(054-856-7888)

안동하회(安東河回)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민속 마을이다. 하회 류씨 집안의 발상지이며 그들의 자손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 서애 류성룡과 겸암 류운룡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류성룡은 스승인 퇴계 이황의 학설에 따라 이기론(理氣論)을 펼치고 양명학을 비판했다. 그가 남긴 저작 중 '징비록'(懲倭錄)은 임진왜란의 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다시 그러한 수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후세를 경계하기 위해 남긴 저술이다. 마을 주민의 70%가 풍산 류씨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하회탈춤으로도 유명하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었다.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에 참여하세요”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은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과정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받게 되면 재외동포재단이 인증한 교사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과정은 각 25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75차시로 크게 2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진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온라인 교육입니다.

한글학교 교사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과정 이수자를 위한 단축과정도 별도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 안내



스터디코리안
온라인 수강 신청



스터디코리안 접속 <http://study.korean.net>
(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교 등록 및 수강 신청



개강 알림
(수강 신청 시 알려 주신 이메일로 개강 알림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수강하기

수강 일정

과정 유형	대상	단계	수강 일정			
			7/17~8/27	8/28~10/8	10/9~11/19	11/20~12/10
정규과정	모든 한글학교 교사	1단계	1기	2기	3기	4기
		2단계	1기		2기	
단축과정A	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과정 이수자	1단계	1기	2기	3기	4기
		2단계	1기	2기	3기	4기
단축과정B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1단계	1기	2기	3기	4기
		2단계	1기	2기	3기	4기

* 단축과정 신청자는 추후 관련 증빙서류(사본)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문의메일: teacher@okf.or.kr)

* 단축과정 신청 대상자도 정규과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단축과정 수강자도 면제된 과목의 청강이 가능합니다.

- 이수 안내**
- 이수기준 : 전 강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평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수증 발급 : 각 단계별 수강 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
-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운영 지원(teacher@okf.or.kr)
 -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kostcc를 검색하세요.



www.hansang.net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

The better Hansang,
For better Korea



HANSANG

제16차 세계한상대회

THE 16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7. 10. 25(수) ~ 27(금) | 창원컨벤션센터



주최



주관



후원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관광공사

협력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